

기사입력: 03.31.10 20:22

▶ 인쇄하기

올해의 상공인 이상철·조 안젤린



31일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에서 진신범 신임회장(왼쪽)이 이명석 직전 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받고 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3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30주년 기념 상공인의 밤 행사와 함께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하용화 뉴욕한인회장 등 한인 사회 주요 인사를 비롯해 프라비나 라가반 연방소기업청(SBA) 뉴욕지부장, 피터 구 뉴욕시의원,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에릭 아담스 뉴욕주 상원의원 사무실 관계자 등 주류 인사 300여명이 참가했다.

더블트리호텔의 조 안젤린 사장이 올해의 상공인 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우수기업으로는 한양마트·모닝글로리, 웨비오, 엑스트림 케어, 스타사이드 약국체인이 선정됐다.

씨캐슬 그룹·동부관광 등 2009 인천 세계도시 축전에서 뉴욕관 설립과 80일간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한 5개업체에게는 감사패가 증정됐다.

16대 회장으로 취임한 진신범 신임회장은 “선대 회장들이 닦아놓은 기초를 토대로 협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2년동안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숙 기자 hs_ny@koreadaily.com